80-현장에세이-2 2005.2.12 9:42 AM 페이지80 001 Acrobat™ PDFWriter

해운대 유감

채호성
(주)자연과환경상무

매번그렇지만일로인한출장길은설레지않는다. 부산수영강자연형하천정비공사를위해올해만해도 열번이넘는부산출장길이다. 일정도조급하거니와 일행과의 대화가 일 이야기로만 이어지니, 창문밖 정경이나여행의여유로운마음은찾을수없고. 오래전여행 중들렀던‘ 갈매기부산 은이미낭만항구, 이별의부산 정거장이아닌첨단국제도시, 영화도시라고우기고있어선지 공룡 같은 랜드마크가 너무도 많은 기형적 모습으로변장하고있었다.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된 도시 고속도로는 수영강과 어깨를 나란히하다가잠시만무심할라치면어느새바다곁으로데려다주었고, 바쁜 갈매기가마중나와 있어바다냄새를맡지않아도바다인줄 알게 해주었다. 이곳 수영만은 아파트건 요트장이건‘ 마리나 라는 글자를디립다붙여놓고있어싱가포르를연상하게하고,‘ 아쿠아 ’가외래어가아니고정겨운부산사투리였으면얼마나좋을까하는 아쉬움을들게하는수족관이름이해운대백사장입구에크게쓰여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해운대하면 백사장 해수욕장을연상하게되지만 체감적으로는‘ 해운대에산다 고하면신도시를말하고, 부산집값을이야기할때면해운대아파트단지를들먹여분당신도시처럼평당가격이얼마냐고으레묻게되었다. 필자도그랬으니까.

이제 해운대는 내륙 중간에 버틴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로, 느끼는감정이삭막하게바뀌어버렸으며수영이나반송도아파트가천지삐까리가되어버렸다. 해운대갔다온이야기를하라면해수욕장 이야기하고, 밤백사장포장마차가어떻고, 파라다이스호텔라운지가죽이고, 지금은없어진홍등가며, 시장가면순대를된장에찍어 먹어야한다는둥너스레를떨뿐이다.

해운대아파트단지를거닐다보니 시멘트 덩어리의답답한아파트단지사이에실낱같은숨통인‘ 춘천 이라는하천이하나있는데, 흐르고있는게아니라물한방울없는삭막한통로가흉측하게자리잡고있었다. 어떤썩을인간들이강바닥이나둔치나호안을모두 돌과 시멘트로 덮어놓아 풀 한 포기, 송사리 한 마리 없는 사막 물길을 만들어 놓았는가. 상류에는계곡에서 감로수 같은 1급수가 흘러나오는데모두 저수지에 가두어 춘천으로 흘려보내지않는단다. 유원지공원조성이라나…. 그곳에사는주민들은보물을빼앗긴셈이다.

물이흘러야강이고그강엔마땅히생물이살아있어야할것이아닌가? 몇년전부터해운대구청장1번공약이‘ 춘천 자연형 하천 복원 이다. 저번 구청장도 의욕만 넘치다 종치셨고, 이번 구청장도 의욕이 넘치는 분이시던데 아직까지도 춘천은 십여 년 동안 탁상공론으로 시체처럼 누워있을 뿐이다. 정말로 아깝고 생각할수록 분통터지는부산해운대춘천이다.

우리누님옛날신혼여행갔다던그해운대는동백섬과조선호텔로모습을그나마유지하고있지만, 명물 백사장은이제 매년이상해류덕분으로몇억원의모래를타지에서실어와해운대백사장에 퍼부어놓는인공자연백사장이란다. 어쨌거나지금도여름바캉스의절정을해운대백사장단위면적당인파수로산정해뉴스시간에보도하니해운대모래가없으면여름피서의체감지수를가늠치 못할 것이니 국민의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운대백사장에 모래는 꼭있어야겠다는생각이다.

일마친후옛생각으로달맞이길을올랐다. 그풍광이좋고분위기좋던카페이름이가물가물한데차를대니‘ 언덕위의집 이란명판이들어온다. 지난생각이아득하다. 그여름밤카페야외목재데크에서해운대야경을보며시원한바닷바람에크림가득한모카커피를마시던경쾌함과푸근함.

그옛날을기대하며카페문을연다. 비가와서야외테크엔아무도 없다. 서먹하다. 별이 쏟아지던 여름밤도 아니고, 이젠 해운대야경보다바다를가로질러새로놓았다고자랑하던광안대교불빛이생경하게다가온다. 더욱이크림모카커피도없단다. 젠장! 빌어먹을!

십년 전에도 그랬지만 달맞이길 언덕에 있는 멋진 빌라에 살고 싶었다. 아침에일어나저렇게큰창으로남해바다를보고, 일출을 보고, 겨울이면그아래언덕배기에촘촘히알박이한붉은동백꽃을어루만지며바닷새소리를듣고산다면…. 가끔은귀신고래도볼 수있겠지.